

No.20150930-001

제목: 출장요리 오리오리당 - 4월~9월

저자: 야스다 이오

페이지수: 299

장르: 소설

출간일: 2015년 03월 24일



<내용소개>

회사를 그만두고 꽃미남 셰프와 함께 펼치는 부엌의 희비를 담은 이야기

우리는 매일같이 오늘은 뭘 먹을까에 대해 고민하고, '오늘 뭐 먹지?' 라고 묻곤 한다. 그리고 따로, 혹은 같이 밥을 먹는다. 음식은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용할 양식이기도 하고, 어떻게, 무엇을 먹느냐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또 최근에는 갈수록 높아지는 먹을 거리에 대한 관심에 음식 관련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버라이어티에서 음식관련 방송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드라마, 영화, 소설 등 갖가지 매체에서 우리는 음식을 접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인기를 끈 일본 드라마 '심야식당'이나 '고독한 미식가', 영화 '카모메 식당', '남극의 셰프' 등 특히 일본의 음식 드라마, 영화는 소소한 일상의 요리로 가슴 따뜻한 위안을 선사함으로써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화면 가득 아름다운 색채로 가득 찬 요리들의 향연을 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입에 침이 고인다. 음식이나 요리를 소재로 한 작품은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소설에도 많은데, 책에 묘사되는 요리들을 머리 속으로 상상하면 일본에 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 책은 곧 40세가 되어가는 주인공 스미카가 오리오리당의 꽃미남 셰프에게 첫눈에 반해 하던 일도 그만두고 셰프의 조수로 들어가며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짝사랑을 하는 여자의 마음 속 이야기를 들으며 재미를 느끼는 한 편 맛있게 묘사되는 요리에 또 한번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매 월마다 오더를 받고, 손님을 위해 정성스럽게 요리를 만드는 셰프와 셰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처음에는 그저 꽃미남 셰프만 보느라 일도 제대로 못하는 스미카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게 될지도 모르지만, 점점 일에 대해 진지하게 마주보고 성장해 가는 스미카를 보는 재미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월의 손님들의 행복의 이야기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재료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손질하고 만드는 과정이 자신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그려져 입맛을 다시게 되는 맛있는 소설이다.

<목차소개>

4월: 타워만 부인과 도미공양

5월: 불에 살짝 구운 가다랑어와 언니의 사육제

6월: 몬스터 신부와 5색의 극락조

7월: 뼈를 자른 갯장어와 서쪽에서 온 남자

8월: 구운 여름 굴과 초대되지 않은 손님

9월: 사랑의 행방과 달밤의 연회

<저자소개>

야스다 리오

1966 년 오사카에서 태어나 간사이 대학 법학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법무사가 되었다.

2010 년에 “타부라카시”로 제 23 회 소설 스바루 신인상을 수상하고, 2011 년에 단행본 “타부라카시”로 발간했다.

No.20150930-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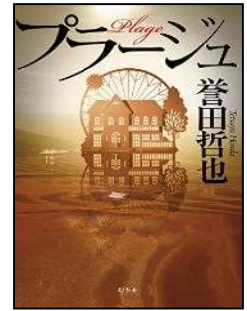
제목: 플라주 (Plage)

저자: 혼다 테츠야

페이지수: 357

장르: 소설

출간일: 2015년 09월 17일



<내용소개>

**어느 세어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전과자들의 이야기.
주민들의 비밀이 밝혀질 때, 새로운 사건이 일어난다.**

마약법 위반으로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타카오는 어느 날 윗집의 실수로 집이 불에 타 버리게 된다. 갈 곳이 없어진 타카오는 한 세어하우스에 들어가게 되고, 6명이 함께 한 집에 살게 된다. 일이 없었던 타카오는 세어하우스 주인의 카페에서 일을 도와주게 되고 집안 식구들과 점점 친해지게 된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는 타카오는 점점 세어하우스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지만,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알아가면 알아갈 수록 비밀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을 궁금하게 여기게 된다. 그러던 중, 함께 살던 미치히코가 살인을 했던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과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러던 중 미와가 죽인 사람의 지인인 아키토모가 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세어하우스에 사는 모두가 경찰에 연행 된다. 타카오는 집행유예 중이었기 때문에 힘들게 풀려나 세어하우스로 돌아오게 되며 이야기는 끝난다.

만약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과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같은 식으로 대할 수 있을까? 법률로 정해진 벌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처럼, 지은 죄가 끝난 것처럼 그 사람을 받아 들일 수 있을까? 아마 몰랐던 때처럼 대하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사는 세어하우스의 주민들은 모두 그렇게 자신을 보는 눈의 변화를 알아채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지은 죄의 잔상은 어디까지나 쫓아온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원래는 피해자였을지도 모르지만 당사자는 자신을 보는 사람의 눈 안에서 그 잔상을 볼 것이다. 과거의 죄를 숨기고 일상생활에서는 그것도 잊고 새로운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있을 것이다. 범죄자이지만 사회로 돌아온 이후 제대로 된 사회 활동을 할 수 없어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되어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사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작품이다.

<목차소개>

1. 타카오의 사정 / 2. 기자의 눈빛 / 3. 타카오의 새 거주지 / 4. 미와의 주소
5. 타카오의 소식 / 6. 기자의 추적 / 7. 타카오의 취직활동 / 8. 시오리의 기분
9. 타카오의 좌절 / 10. 기자의 잠입 / 11. 타카오의 의심 / 12. 미치히코의 상처자국
13. 타카오의 손 끝 / 14. 준코의 휴식 / 15. 타카오의 곤혹 / 16. 미와의 미주
17. 타카오의 걸돌기 / 18. 기자의 갈등 / 19. 타카오의 당황 / 20. 토모키의 회한
21. 타카오의 사각 / 22. 준코의 기도 / 23. 타카오의 귀환

<저자소개>

혼다 테츠야

1969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2002년에 "요염한 꽃"으로 제 2회 무 전기 노벨 대상 우수상을 수상하며 데뷔했다. 2003년에 "엑세스"로 제 4회 호러 서스펜스 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스트로베리 나이트", "지우", "무사도 식스틴", "짐승의 성", "인덱스" 등 다수 있다.

No.20150930-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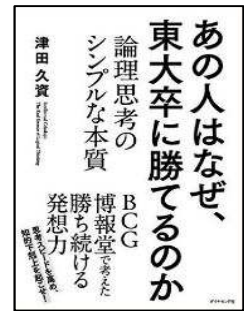
제목: 저 사람은 어떻게 도쿄대 졸업생을 이길 수 있었을까?

저자: 츠다 히사시

페이지수: 256

장르: 경제경영 / 자기계발

출간일: 2015년 09월 18일



<내용소개>

생각하는 힘을 길러 지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도와주는 경영서

일을 할 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많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 하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원간의 의사소통을 잘 해서 최대한 빨리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을 처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의사소통인 것이다. 이미 결론이 있거나, 결론이 보이지 않을 때, 관점이 다른 복수의 상대를 설득하는 등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토론, 협상, 프레젠테이션 등 모든 분야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논리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면 의사소통은 불가하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본문에서 저자는 어휘력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삼는다. 어휘력은 모든 활동에 기본이 되는 것이기도 한데, 특히 논리적인 사고를 위한 기반으로는 이것만한 것이 없다고 한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피드이다. 즉,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상, 실현하는 스피드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비즈니스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빨리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능력은 평소 지식의 양이 많거나 머리가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의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때, 어휘력을 기르는 것은 논리적 사고의 힘에 직결하는 것이기에 많은 어휘를 습득하고 그 어휘를 상황에 맞게 쓰는 힘을 길러야 한다. 또한, 정보를 모으는 것은 답을 만들기 위한 것 보다는 답을 검증, 또는 보강하기 위한 재료로 써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역시 어휘력을 기반으로 한 논리적인 사고이다. 정보를 모을 때, 결론 가설을 생각하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정보 수집을 한 후 결론가설이 틀렸으면 다시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새로 정보를 수집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만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의 스피드를 올릴 수 있다.

지금까지 논리적 사고를 계속 연습해 왔지만 좌절을 했던 사람,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는 사람, 발상하는 스피드와 아이디어의 질을 높여 비즈니스

를 성공적으로 해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일 것이다.

<목차소개>

시작하며

(‘식빵’을 생각해 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 사고는 ‘툴’에서 배우지 말고 ‘에센스’에서 배워라 등)

제 1장: 사고의 필드에서 이긴다 - 맥킨지와 도쿄대 졸업생의 ‘똑똑함’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들은 언제나 ‘잘 생각했다’고 오해한다 / ‘생각하는 야만인’이 발호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등)

제 2장: 사고의 폭을 넓혀라 - 아이디어의 ‘손오공’이 되지 않는 유일 가능한 방정식

(‘바보의 벽’이 있으니까 발상이 넓어지지 않는다 / 발상의 양을 정하는 세 가지 변수 등)

제 3장: 논리적으로 생각해라 - 천재에 가까워지는 사고법

(‘단어는 ‘경계선’이다 / 같고 닮은 어휘력은 논리사고력에 직결한다 등)

제 4장: 발상의 확률을 높여라 - 광대한 사막에서 보석을 찾기란?

(‘깜박 잊음’을 줄이는 전략적 체크 리스트 / 왜 맥킨지는 ‘MECE하게 생각한다’일까? 등)

제 5장: 발상의 재료를 늘린다 - 지식을 통째로 삼키기, 편식을 없애는 센 전략

(왜 지식인일수록 정보를 ‘모으지 않는’ 것일까? / 평범한 지식을 ‘아이디어의 씨앗’으로 깊게 한다 / 처음 배울 때의 ‘WHY?’가 지식의 열쇠 등)

제 6장: 발상의 질을 높이는 실전 지식 - 선무당이 사람을 잡지 않기 위해

(로직 트리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 단어력을 높이는 네 가지 습관 등)

제 7장: 결론사고의 정보수집술 - 왜 저 사람의 새 프로젝트는 물거품이 되었는가

(정보수집을 하는 사람에게는 ‘숨겨진 결론가설’이 있다 / 정보가 불완전해도 ‘자신의 답’은 보인다 등)

마지막 장: 저 사람은 왜 도쿄대생에게 이겼을까? - 지적 하극상의 시대를 살아가다

(‘학력 따위 사회에 나오면 관계 없다’는 진짜인가? 등)

<저자소개>

츠다 히사시

도쿄대학 법학부 및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했다. 하쿠호도,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지속적으로 신상품을 개발, 브랜딩을 포함한 마케팅 전략의 입안, 실행을 했다. 현재 AUGUST-A대표로써 각 사의 컨설팅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또 아카데미 힐즈와 대기업의 연수에서 논리사고, 전략사고의 강좌를 다수 담당하고 있다. 표층적인 툴 해설에 일관하지 않고, 매우 심플한 단어로 사고의 본질에 다가간다. 연수 스타일에 정평이 나있어 총 만 명 이상 의지도 실적을 가지고 있다. 저서로 취직 활동 면접서 중 꼭 읽어야 할 “로지컬 면접술”외에 “세계에서 가장 알기 쉬운 로지컬 생각 수업”, “잘하는 사람일수록 정보수집은 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

No.20150930-004

제목: 일류를 만드는 컨디셔닝 습관

저자: 코바야시 히로유키

페이지수: 192

장르: 건강 / 자기계발

출간일: 2015년 06월 12일



<내용소개>

자율신경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다.

자율신경 전문가가 알려주는 항상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힌트를 모아놓은 책

사람에게는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손, 발, 입 등은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지만, 내장, 혈관 등은 의지로 움직일 수가 없다. 이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을 자율신경이라고 한다. 이름 그대로 '자율적(자동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몸 상태를 정비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교감신경은 '몸을 활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몸을 진정시키고 쉬기 위한 신경'이다. 자율신경계에 무리가 오게 되면 평소보다 쉽게 피곤함을 느끼거나 소화 불량, 혹은 두통으로 고생할 수 있다. 이렇게 몸이 피곤하게 되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방해가 되고, 결국 생각했던 것만큼 잘 해나갈 수 없게 된다.

저자는 자율신경연구의 일인자로서 많은 프로 스포츠선수와 아티스트들이 컨디션을 조절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 저자가 말하기를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의식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본 경기에서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낼 수 있는가' 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하기 위한 상태로 정비하는 것이 컨디셔닝이다. 그리고 그 컨디셔닝 의식이야말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율신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것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동시에 좋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자율신경의 정비, 정돈방법으로는 몸에 부담이 되는, 스트레스가 되는 것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없애고, 몸의 구조에 맞는 '행동패턴'을 몸에 익히고 항상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옷이나 구두를 선택하는 방법을 바꾼다던가, 자기 전 습관을 바꾼다던가, 회식권유엔 바로 대답하지 않고 하루 정도 생각하는 등 주위에서 바로 바꿀 수 있는 습관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나 행동을 계속해 나아가, 항상 조금씩 의식을 하고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저자는 자율신경을 정돈하고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80가지의 방법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하나하나 따라서 함과 동시에 자신의 습관을 바꾼다면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스트레스가 없어짐에 따라서 일을 더 잘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제 1장: 우선 물건을 정리하고 마음을 안정시키자 - 주위를 정리하는 방법

(‘정리하는 장소’를 정한다 / 날씨가 나쁜 날은 밝은 색 넥타이 / 지갑 정리는 하루 한번 등)

제 2장: 하루마다 몸의 변화를 의식한다 - 시간 정리 법

(점심 식사 후의 2시간은 버려도 상관없다 / 비가 오는 날은 설정시간을 짧게 한다 / 큰 문제일 수록 작게 생각하고, 세세한 것일수록 크게 생각하자 등)

제 3장: 억지로 맺은 관계를 자르자 - 인간관계 정리 법

(사람의 평가는 하지 않는다 / SNS는 ‘자율신경을 어지럽히는 도구’ / 사람과 만날 때에는 상대의 신조를 생각하자 등)

제 4장: 몸의 스위치를 의식하자 - 몸을 정리하는 법

(한잔의 물이 몸 상태를 돌려 놓는다 / 온도차에 민감해져라 / 하루를 거꾸로 계산해서 먹는다 / 주 하루는 수면의 날을 만들자 등)

제 5장: 오늘 밤을 돌아보는 것이 내일의 성공을 만든다 - 행동패턴 정리 법

(하루를 돌아보고 ‘실패’를 ‘성공’의 패턴으로 덮어쓰자 / 실수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메모 / 집에 돌아오면 바로 ‘한 개의 법칙’ 등)

제 6장: 스트레스에는 빠르게 대처한다 - 멘탈 정리 법

(사이가 안 좋은 상대한테 걸려온 전화는 일단 무시하고 다시 건다 / 잘 하는 사람일수록 중요하게 여기는 ‘Don’t believe anybody’ 등)

제 7장: 자신의 타입을 알자 - 자기다움의 정리 법

(인간은 네 가지 타입으로 나뉜다 / 정말로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승부한다 등)

<저자소개>

코바야시 히로유키

준텐도 대학 의학부 교수이자 일본 체육협회 공인 스포츠 닥터이다. 1960 년 사이타마에서 태어나 1987 년 준텐도 대학 의학부를 졸업, 1992 년 준텐도 대학원 의학 연구과를 수료했다. 런던 대학 부속 영국 왕립 소아병원 외과, 트리니티 대학 부속의학 연구센터, 아일랜드 국립 소아 병원 외과에서 근무를 거쳐, 준텐도 대학 소아외과 강사, 조교수를 역임했다. 자율신경 연구의 제 1 인자로서 다수의 프로 스포츠 선수, 아티스트, 문화인의 컨디셔닝, 퍼포먼스 향상 지도도 하고 있다.

No.20150930-005

제목: 돈을 끌어 모으는 방 만들기

저자: 야마다 히로미

페이지수: 316

장르: 처세 / 실용

출간일: 2009년 04월 23일



<내용소개>

룸 테라피를 통해 행복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실용서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 지고 싶어한다. 행복해지기 위해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현실은 일과 생활에 쫓겨 그 마음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 간혹 행복해지기 위해 행복해지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나 강연회에 가서 방법을 배우고, 집에 돌아와 실천하려 하지만, 결국 작심삼일로 끝나는 일도 많다.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해 보면 막연할 뿐,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 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여러 많은 노력보다는 생활 안에서 간단한 것부터 바꿔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저자가 말하는 “룸 테라피”란 자신의 본심을 방에 반영 시켜서 개조를 하는 것이다. 방을 개조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생활과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다. 공간은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마주 앉아 있는 사람을 볼 때에도, TV를 볼 때에도 시선은 무의식 중에 그 주변을 함께 보고, 주변 환경은 무의식 중에 깊이 자리하기 때문에,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변화시키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룸 테라피를 사용해 방을 개조함으로써 행복과 행운체질로 변화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룸 테라피를 사용해 개조한 방에서 매일을 보내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인생이 호전 되어 갈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을 해서 자신을 바꿈으로 자연스럽게 주위가 변화되는 것을 좋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순서를 고집하기보다는 즐겁게, 바로 결과가 나오도록, 스스로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실제로 돈이 모아지는 방(호텔 등), 건강해 지는 방(해변, 궁 등),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방(음식점 등),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방(영화관, 식당 등)을 예로 들어 이 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실제로 자신의 방에 도입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엔 룸 테라피를 이용한 마음가짐과 방 개조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개조 방법을 매일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방에 도입한다면 주위 환경이 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활패턴도 사고방식도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행복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목차소개>

제 1장: 행복한 부자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돈의 행동의 공통점을 알고 있습니까? / 꿈이 이루어 지는 프로세스를 알고 있습니까? 등)

제 2장: '룸 테라피'란?

(행복한 최고의 인생을 보내기 위한 황금률 /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찾아 설계한다 등)

제 3장: 돈이 들어오는 방을 만드는 방법

(이미지에 가까운 장소를 찾는다 / 당신의 방으로 도입하는 방법 등)

제 4장: 건강을 좋게 하는 방을 만드는 방법

(건강이 좋아지는 장소를 찾는다 / 산과 들판 등)

제 5장: 만남을 좋게 하는 방을 만드는 방법

(하고 싶은 만남이 일어나게끔 하는 장소를 찾는다 / 음식점 등)

제 6장: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방을 만드는 방법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상황을 찾는다 / 영화를 즐긴다 / 대화를 즐긴다 등)

제 7장: 당신이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한 스텝

(행복한 부자가 된 당신의 생활을 이미지 한다 / 미래의 당신이 살 방을 개조한다 등)

제 8장: 자! '룸 테라피'를 해보자

(당신의 미래의 변화에 맞춰 개조한다 / 매일 아침 강력한 신 습관 등)

<저자소개>

야마다 히로미

룸 테라피 주재, 룸 테라피스트이며 1 급 인테리어 설계사(오사카 인테리어 설계사 협회 이사), 심리 카운셀러(일본 멘탈 헬스 협회공인 카운셀러 취득)이다. 1964 년에 태어나 상장기업을 포함해 10 년간 회사원생활을 거쳐, 개조를 좋아하던 능력을 살려 인테리어 기획 설계의 일을 시작, 공무소, 집을 짓는 사람, 가게 주인에게 어드바이스를 하며 지지를 얻고 있다.

No.20150930-006

제목: 일의 불안을 하나씩 없애가는 방법

저자: 야마사키 마리코

페이지수: 208

장르: 경제경영 / 자기계발

출간일: 2013년 12월 06일



<내용소개>

일을 할 때의 불안감을 없애 자신감을 갖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

아마도 불안은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심리상태일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불안을 경험한다.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은 사람이나 집단, 그리고 문화마다 각기 다르고 그 방식을 살펴본다면 성격이나 특성을 쉽게 알 수 있다. 불안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상태'를 일컬으며 심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원하지 않는 생각이나 감정을 가질 때 생기는 불쾌한 감정' 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인 정의를 내린다. 사람은 마음이 편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상태일 때 경험하는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픈 강한 욕구를 발생시킨다. 어린 시절 함께 잘못을 한 친구가 체벌을 받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면서 조마조마 했던 기억이나 병원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주사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가진 기억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갖게 되고 일을 하면서도 과연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불안을 갖기도 한다. 그리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사람들 중에는 그 불안에서 벗어나려 갖은 노력을 하고 결국 불안한 상태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고, 불안과 맞서 이겨내려는 노력 끝에 불안을 뛰어 넘는 사람들도 있다.

이 책은 그런 불안 앞에 선 사람들에게 불안을 극복하고 넘어 뛰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저자는 동경하던 일본 최고의 편집샵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가 그 곳에서 사원으로, 더 나아가 대표이사가 되게 된다. 그렇게 진급을 하는 동안 많은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한다. 계속 변화하는 세상 안에서 남들 보다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안을 할 수 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눈 앞이 캄캄해 질 만큼 큰 벽이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할지 고민하고 지혜를 짜 내었다. 그 결과 20년간 동종업계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한다. 저자는 고통스러운 경험일수록 그 것을 뛰어 넘어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 것이 나의 "성장 시점"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벽"이란 성장하기 위한 찬스, 그 것을 뛰어 넘는 방법이 그 사람의 스킬이 되고 그 사람의 개성, 철학이 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모르는 일', '리더십', '인간관계', '목표' 라는 다섯 가지의 벽을 내세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써 피할 수 없는 이 벽을 어떻게 뛰어넘어가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계속 성장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풀어내고 있다.

<목차소개>

시작하며 - 눈 앞의 '벽'을 뛰어 넘는 방법

제 1장: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벽을 뛰어 넘는 방법

(동경하는 셀렉트 샵으로 / 프로의 일을 배운다 / 하라주쿠 본점 리뉴얼 프로젝트 / '에이스 4번 타자'였는데... / 서드아이를 가져라 등)

제 2장: '모른다'는 벽을 뛰어 넘는 방법

('모르니까 공부 하는게 어때?' / 한번은 이직을 생각해 본다 - 자신의 위치를 모를 때 등)

제 3장: '리더십'의 벽을 뛰어 넘는 방법

(입장이 바뀌면 요구도 바뀐다 / 부하가 꾸고 있는 꿈을 알자 / 내 상사 대처법 등)

제 4장: '인간관계'의 벽을 뛰어 넘는 방법

(불평은 성장의 천장을 정해버린다 / '지금 필사적인 사람'을 바라보는 후각 / 내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패션 등)

제 5장: '목표'라는 벽을 뛰어 넘는 방법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방법 / 전후 좌우를 주의하여 살핀다 / 다음 '벽=목표'를 요구해라 등)

<저자소개>

야마사키 마리코

1973 년 후쿠오카에서 태어나 가쿠슈인 대학 경제학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6 년 유나이티드 아로즈에 입사, 판매 촉진부에 소속되었다. 그 후 광고 선전부로 이동, CI 담당 프로듀서가 되었다. 2008 년 경영개발 본부 경영기획부장, 2010 년에 집행 위원에 취임되었다. 2011 년부터 경영 기획실장 겸 패션 마케팅 실장이 되었다.

No.20150930-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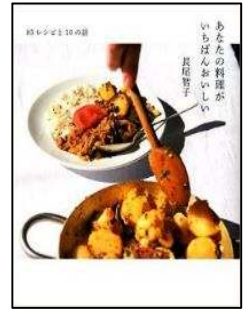
제목: 85가지 레시피와 10가지 이야기 - 당신의 요리가 가장 맛있어요

저자: 나가오 토모코

페이지수: 110

장르: 요리 / 에세이

출간일: 2015년 05월 15일



<내용소개>

빼놓을 수 없는 밑반찬, 식단 힌트 등을 제시해 요리를 즐겁게 하는 레시피집

최근 요리와 관련된 예능 방송과 많은 유명 셰프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채널을 돌릴 때마다 익숙한 셰프의 얼굴과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등장한다. 유명 맛집 소개는 물론이고 맛집의 레시피를 소개하는 프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요리를 못하던 사람들도 또 혼자 사느라 요리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던 사람들도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조금씩 따라 하기 시작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요리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특히 요리에 관심을 갖고 요리를 잘 하는 남자셰프들이 TV에 나오면서 '요섹남(요리 잘하는 섹시한 남자)'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는 것은 최근 사람들의 관심분야에 요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등장하는 셰프들과 요리프로의 공통점은 한 번 맛보기도 어려운 정통요리보다는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레시피로 대중들을 요리의 세계로 입문시켰다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정통으로 배운 기술로 근사하게 차리는 '완벽형' 요리였다면 최근에는 누구든지 도전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쉬운 '대중형' 요리로 친밀감과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집에서 누구나 쉽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집밥'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정에 굶주린 사람들이 집밥의 감성을 그리워하게 된 것이다.

'집밥'을 그리워하고 만들어 보고 싶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자는 자신의 레시피를 알려주고 있다. 거의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요리로 대부분의 요리에 채소를 많이 사용해 집에서 먹는 느낌이 많이 나게 하는 요리들로 구성되어 있다. 요리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도 물론 맛이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요리가 가장 맛이 있다고 느껴질 것이다. 지식과 경험이 많아 실력이 좋아서 만드는 것 보다는 요리 재료의 이야기를 들으며 천천히 만들어 가는 것이 즐겁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만들었을 때가 가장 맛있는 요리가 나온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 자신도 최근에 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우선 자신을 위해서 요리를 시작하고, 재료에게 성의 있는 태도로 요리를 만든다. 그리고 만든 요리를 가족과 함께, 누군가를 초대하거나, 아니면 혼자서 조용히 먹는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점점 자신이 원하던 집 밥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항상 즐겁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저자의 이야기가 담긴 칼럼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 따뜻한 사진과 글을 보면서 눈도 마음도 따뜻해 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본문 이미지>



ミニトマトの甘酢漬け (P.13)。
 デルモネのオイルマリネ (P.11)。
 赤ぶりのこのオイルマリネ (P.15)。
 カリフラワーの甘酢漬け (P.13) を取り合わせて、
 赤玉ねぎとカッパ・パセリを添えて一品に。
 こしょうを熱きかけ、オリーブ油をまわしかけて、



塩漬け豚肉のシチュ―

材料 5～6人分
豚肩ロース肉(塊)……約700g
塩……豚肉の重さの2%
玉ねぎ……2個
にんにく……大1片
ローズマリー……2本
冷凍ゆでひよこ豆(9.5%)
……約150g
オリーブ油……大さじ2
水……約2杯

作り方

- 1 豚肉は、肉に塩をすりこみ、保存袋に入れて冷蔵庫で半日以上寝かす。
- 2 1の塩気と水気を拭き取り、50〜60g大に切り分ける。
- 3 鍋に2と水を入れ中火にかけ、沸立ったら火を少し弱め、アクをとり、軽く煮立〜唇の付いた程度に火加減で50分ほど、肉がやわらかくなるまで煮込む。
- 4 まねきは8等分のくしに切り分け、3に加える。にんにく、酒場にはお好みでローズマリー、オリーブ油を加える。スープの味をみて、薄ければ塩を少し(分量)、煮を少ししうすしてから煮て20分ほど煮込む。液面、煮た部分の水を捨て(分量)。
- 5 すてがやわらかく煮えたら、冷まして、冷汁でひきこむ。煮汁を加えて煮る。10分ほど煮る。

＊塩漬け内をゆっくり煮ると、塩味がじわじわとしみ出してだしになる。雪が溶けがポイント。ひよこ豆は、ゆでて冷凍しておくとこんな時にとても役立つ。このシチューは思い切りたくさん仕込んで、2回目はカシュー乳に、その次はトマト乳にと変化させるのも面白い。



定番スコーンと
ナッツはちみつ、
ホイップクリーム

材料 直径 5cm の 20 個分

A・薄力粉……………350g
薄力粉……………120g
ベーキングパウダー……………大さじ 1 + 1/2

B・全粒粉……………30g
てんさい糖……………大さじ 3
塩……………小さじ 1/3

バター（食塩不使用）……………120g
牛乳……………250 ～ 300ml
はちみつ……………大さじ 5
くるみ……………20g
カシューナッツ……………20g
生クリーム……………200ml
サワークリーム……………100ml

作り方

- 1 バターは融かいたものに塩をきき、牛乳に冷ましておく。
- 2 卵黄、砂糖、ボカシをいれ人火をいれ、煮立て、泡立って来たら、手で混ぜておく。
- 3 2に牛乳を加え、手で混ぜておく。砂糖は砂糖鍋で、煮詰めておくと、食べやすい。砂糖は砂糖鍋で煮詰めておくと、食べやすい。砂糖は砂糖鍋で煮詰めておくと、食べやすい。
- 4 砂糖鍋で煮詰めておくと、食べやすい。砂糖は砂糖鍋で煮詰めておくと、食べやすい。
- 5 砂糖鍋で煮詰めておくと、食べやすい。砂糖は砂糖鍋で煮詰めておくと、食べやすい。
- 6 砂糖鍋で煮詰めておくと、食べやすい。砂糖は砂糖鍋で煮詰めておくと、食べやすい。
- 7 オリーブオイルにベーキングパウダーを混ぜ、お湯をいれ、煮詰めておくと、食べやすい。
- 8 砂糖鍋で煮詰めておくと、食べやすい。砂糖は砂糖鍋で煮詰めておくと、食べやすい。
- 9 サワークリームに生クリームを2-3割加えて、煮詰めておくと、食べやすい。
- 10 砂糖鍋で煮詰めておくと、食べやすい。砂糖は砂糖鍋で煮詰めておくと、食べやすい。

310

<목차소개>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1. 사는 것 보다 맛있는 집에서 만드는 반찬
(구운 야채 오일 마리네 / 야채 초절임 / 구운 생선 소보로 / 심플하게 삶은 닭 등)
2. 매일 쓰고 싶은 집에서 만드는 조미료
(안초비 파슬리 오일 / 허브 소금 / 매실과 다시마 식초 등)
3. 냉장고는 요리 보조상자

(있으면 안심되는 냉동 고기 완자 / 생선을 즐길 수 있는 냉동 / 정어리 감주간장 구이정식 등)

4. 맛을 정하는 수는 소금

(양파와 토마토 데일리 스프 / 야채 초절임 / 양배추 초절임 샐러드 등)

5. 쌀과의 생활

(두부와 큰 실말 된장국 / 닭과 현미를 넣어 지은 밥 / 여름 야채 샐러드 스시 등)

6. 익숙한 채소를 새롭게

(레몬 버터 포테토 / 가지 올리브유 구이 / 토란과 밤 마늘 풍미 소테 / 연근 발사믹 찜 등)

7. 요리에 좀 더 오븐을 사용하자!

(마카로니 그라탕 / 감귤 로스트 치킨과 사과구이 등)

8. 사용해보면 아는 스파이스의 깊이

(마일드한 고등어 카레 / 인도풍 튀김 / 차이와 스파이스 차 등)

9. 궁극의 대접이란

(방어 지느러미 리에트퐁 과 콜리플라워 / 통 채소 찜 등)

10. 나의 디자인 리스트

(뉴 카메야마 / 딸기잼 젤리와 요구르트 크림 / 무화과와 드라이베리 클라푸티 등)

<저자소개>

나가오 토모코

푸드 코디네이터이다. 책과 잡지에 레시피와 에세이를 집필하면서 카페와 레스토랑의 메뉴 플래닝, 식품과 그릇의 상품개발 등도 같이 하고 있다. 자주 생각하는 것은 '요리를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면 세상은 바뀌지 않을까' 이다. 그리고 목표는 '요리를 더 재미있게 하는 스파이스 사용을 늘리고 싶다' 라는 것. 주요 저서로는 "냄비 하나로 할 수 있는 것", "나가오 토모코의 매일을 바꾸는 요리", "나가오 토모코의 요리 1,2,3" 등이 있다.

No.20150930-008

제목: 자신의 생각이 잘 전달되는 '요약'의 기술

저자: 혼마 마사토, 우키시마 유미코

페이지수: 227

장르: 비즈니스 실용

출간일: 2015년 08월 26일



<내용소개>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요약하는 힘'을 기르고 익숙해 질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한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이 한 일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수십 쪽짜리 보고서를 썼는데도 건질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달 내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인데 포인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다.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학생의 경우에도 밤 새워 공부했는데 하필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서만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은 모두 내용 요약에 잘못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이란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핵심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가에 있다. 긴 글을 읽고 글의 핵심을 찾아내어 자신의 글로 소화하고 압축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글을 압축한다고 해서 단순히 문장을 이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을 이해하고 핵심만을 뽑아 새로운 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일을 잘 하는 사람은 대부분 요약을 잘 한다. 짧게, 명확하게, 확실히 중요한 포인트를 인상에 남도록 한 이야기를 들으면 정보가 한번에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정보의 홍수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마음만 먹으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료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우리의 정보 수집력은 엄청나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컴퓨터는 자신의 필요에 맞춰 자료를 고르거나 요점을 파악하는 일을 대신해주지는 않는다. 자료를 찾는 데에는 컴퓨터가 유용하지만 유용한 정보만을 가려내어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요약하고 통합하는 두뇌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의 사고력을 동원해서 해야 하는 것으로 요약훈련을 하면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사고력이 길러지고, 그에 따른 판단력과 표현력도 향상되게 된다. 즉, 요약의 기술은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으로 연결되고,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거나 논리적인 기획안을 써 거래를 성사시키는 등 각종 비즈니스 상황에서 응용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여러 장면에서 실제로 있을 법한 여러 케이스를 소개하면서 효과적으로 요약하는 방법과 요약하는 힘을 높이기 위한 스킬, 힌트들이 익숙해 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실제 우리 생활에서 쓰일 법한 가족소개나 방 소개 등을 예문으로 내고 먼저 스스로가 요약을 할 수 있게 한 다음 어떻게 요약을 해야 좋을지를 자세하고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는 힘은 정보사

회에 있어서 필수적인 능력이 되고 있다. 이 한 권을 다 읽고 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요약하는 힘이 붙어 한 단계 성장한 비즈니스 스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제 1장: 기본 케이스에서 요약의 테크닉을 이해하자

(일단 '요약이란 어떤 것일까'를 실감하자 / 전체상에서 설명하는 테크닉 / 키워드를 발견해 내는 테크닉 / 중요한 부분을 읽어내는 테크닉 등)

제 2장: 기본 흐름과 원칙을 파악해 두자

(전체를 파악한다 /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생각한다 / 목적을 확실하게 해 중요한 부분을 선별한다 / 남은 부분을 생각하면서 추상도를 높인다 등)

제 3장: 응용 케이스에서 더욱 요약력을 업!

(추상도를 높이는 테크닉 / 사실과 주관을 나누는 테크닉 / 표제어를 붙이는 테크닉 등)

제 4장: 요약하는 힘을 기르기 위한 실전 힌트

(요약력을 기르는 메리트는? / 요약을 못하는 사람의 6가지 패턴 / 쓰는 연습을 하고, 말하는 방법을 고안한다 / 영상, 그림을 활용한다 / 일상의 여러 장면에서 연습한다 등)

<저자소개>

혼마 마사토

교토 조형 예술 대학 교수, NPO 학습학 협회 대표이사, NPO 헬로 드림 실행 위원이사이다. 도쿄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 미네소타 대학에서 성인 교육학 박사 (Ph.D.)를 취득했다. 기업연수강사 외에 NHK 교육 TV '3 개월 토픽 영어회화'의 강사 등에 종사하고 있다. '교육학'을 넘는 '학습학'의 제창자로서 개인의 가능성을 뽑아내는 코칭과 퍼실리테이션, 캐리어교육, 글로벌 인재육성 등 폭 넓은 테마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

우키시마 유미코

Y's 런닝 주식회사 대표 이사이다. 우라카즈 제 1 여자고등학교, 가쿠슈인 여자 단기 대학을 졸업했다. 업무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OS 의 서포트 업무등을 거쳐 콜 센터, 헬프 데스크의 구성, 운영을 하고 있다. 품질관리, 채용, 인재육성, 교육코스 개발, 고객 만족도 조사의 결과 분석도 경험했다. 2005 년 5 월 Y's 런닝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요약의 힘 강화', '메일 대응력 향상', '클레임 대응', '리더 육성'등 커뮤니케이션 및 매니지먼트 연수를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No.20150930-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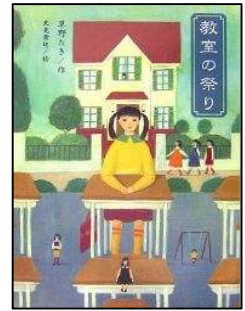
제목: 교실 축제

저자: 쿠사노 타키(글), 키타미 요우코(그림)

페이지수: 164

장르: 아동 소설

출간일: 2006년 10월 18일



<내용소개>

평범한 초등학교 교실을 무대로 한 초등학생들의 일상과 친구관계에 대한 고민을 그린 책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스미코는 새 학기를 맞이해 새로운 반에 들어갔는데, 3, 4학년때 같은 반이었던 나오키와 다시 같은 반이 됩니다. 아는 친구가 없어 외로울 것이라고 걱정을 하던 스미코는 신이 납니다. 나오키는 어른스럽고 그림을 잘 그리고, 평소에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입니다. 그런 나오키는 새로운 반의 친구관계에는 불안함은 없었습니다. 5학년이 시작되고 바로 학원에 다니게 된 스미코는 그 곳에서 같은 반 친구인 카코와 텃쟁을 만나게 됩니다. 남자 아이들과도 사이가 좋은 활발하고 잘 노는 인상의 아이들이었습니다. 학원에서는 카코와 놀고, 학교에서는 나오키와 놀려고 했던 스미코지만 카코는 학교에서도 스미코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지 못한 나오키는 교실에서 혼자가 됩니다. 스미코는 나오키가 걱정이 되지만 카코와 지내는 시간은 즐겁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나오키는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걱정이 된 스미코는 친구들과 함께 나오키에 집에 억지로 찾아가고, 그 다음날 나오키는 학교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스미코는 아직 마음 한 구석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엄마에게 상담을 했더니 엄마는 '포기하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야, 잘 생각해서 잘 선택하렴'이라고 조언을 해 줍니다. 결국 스미코는 나오키와 화해를 하고 다시 친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스미코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미코에게는 나오키가 있기 때문에 왕따를 당해도 강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왕따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왕따와 학교폭력 등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되면서 집에서 지내는 시간 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때 자연스레 아이들 사이에서도 무리가 형성되고, 무리에서 벗어난 아이가 왕따를 당하기 쉽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아이의 학교 생활을 들어보고 혹 아이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왕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스미코와 스미코의 엄마의 대화를 통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친구보다는 진심으로 상담을 들어 주고, 그 고민에 대해 해결책을 스스로 생각 할 수 있게 조언을 해 주는 어른이라는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본문 이미지>

「うん、いいよ。でも、私って半分のしかわかんなかったよ」
「いい、いい。それでいいから」
「じゃあ……」
澄子は、直子にちよっと行ってくるねって、いう顔をしてから、うれしそうに手を振って
カゴのところに行った。
「おお、神さまが来たあ」
カゴが手をあわせて、澄子に頭を下げ。
「神さまじゃないよ。半分くらいしかわかんかったもん」
澄子は手をひらひらさせて訂正する。
「うん、いい。半分で十分から」
てっちゃんが言うから、澄子は坂くあつたイを寄せて座った。
だけとプーをのぞきむと、ふたりは宿題をまったやていてくれた。
「ねえ、これ、マジ」
澄子があきれて言った。
「わかん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やっただけじゃん」

33



「まあ、澄子がいいないけど……」
はつきりしいお母さんの言葉に、澄子はなぜか腹立たしい気持ちになる。
「いいの、これでいいの！」
澄子が自分を納得させるために声を大にして言うと、お母さんはやっぱり「うん……」
とあいまいな返事をするばかりだった。
しかし、毎日はそのまま過ぎて、日曜日はやっきた。
その日アイズニランドで、澄子はすてっちゃんとかゴにはさまれて、手をつないだ
り、腕をくんだりして歩きまわった。
食べていたポップコーンをこぼしては笑い、ミッキーマウスに抱きついてははしゃぎ、パ
レードを見て、うっとりする。
すつきりしい気持ちのまま出かけることになったアイズニランドだったのに、それは
とっても楽しくて、直子との約束をやぶったことも、そのあとの心地悪さもすっかり忘れて、
はしゃいだ。
正直、カステラ作りよりアイズニランドを遊ぶほうが楽しかったと思える、日になったのだっ
た。

47



<저자소개>

쿠사노 타키(글)

19970 년 카나가와에서 태어나 실천 여자 단기대학을 졸업했다. “투명한 실을 늘리며”로 제 40 회 코단샤 아동 문학신인상, 제 30 회 아동문예 신인상을 수상했다.

키타노 요우코(그림)

1957 년 카마쿠라에서 태어나 무사시노 미술 단기대학을 졸업했다. 볼로냐 국제 그림책 원화전에 입선했다.

No.20150930-010

제목: 따뜻해!

저자: 모로하라 지로

페이지수: 25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01년 01월 20일



<내용소개>

추운 겨울, 온천을 찾아 다니는 토끼가 들어갈 온천은 있을까요?

어느 추운 겨울, 토끼는 오들오들 떨면서 눈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온천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추운 토끼는 그대로 온천에 들어가 몸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그 때, 원숭이들이 와서 “여기는 우리 온천이야” 라고 온천을 뺏어버립니다. 쫓겨난 토끼는 또 다른 온천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들어간 온천은 곰 아저씨의 온천이었습니다. 곰 아저씨는 잠수를 하고 있어서 토끼가 발견을 못한 것입니다. 들어 갈 온천이 없어진 토끼는 터벅터벅 눈길을 걷습니다. 너무 추운 토끼는 일단 좀 쉬어가려고 돌 위에 앉는데, 그 돌은 무척 따뜻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토끼는 돌을 움직여 보려고 힘을 씁니다. 돌을 치워보니 그 곳에서 엄청난 온천 물이 나오고, 결국 원숭이탕과 곰탕의 물까지 다 토끼가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토끼는 커다란 온천에서 혼자 온천을 즐깁니다. 그 모습을 곰과 원숭이는 추워하며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토끼는 이 온천은 크니까 다 함께 즐기자며 곰과 원숭이를 온천에 들어오게 합니다. 토끼의 커다란 온천은 주위 동물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너무 욕심을 부리게 되면 결국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동화책입니다. 원숭이와 곰처럼 자신의 소유물을 주장하기 보다는 토끼처럼 남들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아이에게 알려주기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동물 친구들 모두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 혼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좋게 지낼 수 있음을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보며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온천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토끼가 돌을 치웠을 때 온천수가 뿜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온천은 땅 밑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아이와 함께 온천에 가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저자소개>

모로하라 지로

1951 년 토치기에서 태어나 현재는 사쿠라시에 살고 있다. 광고회사에 근무를 한 후, 인형 디자인의 일을 시작했다.

<본문이미지>



